신앙 간증

원 서 /편월선

새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

작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뽑았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어머님을 공경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한 해를 살았다. 불평만 자꾸 생겨났다. 그렇게 지내오다 작년 성탄절 이브에 나는 교회에 가는 길에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넘어지는 그 순간 아프다는 생각보다 이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어 월삭예배에 하나성가대로 찬양을 드리는 일과 성만찬 준비와 출석 체크를 하는 일이 번거로워 성가대는 그만두어야지 했던 교만한 마음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다. 넘어지면서 다친 다리의 대퇴부의 뼈가 세 모로 부러지고 으스러져서 허벅지를 절개하고 다섯 개의 핀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상태가 위중해서 못 걸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나중에 아이들이 전해주었다. 다리 수술하고 2개월을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지내면서 어머님께 불효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날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신다는 걸 알고 날마다 새 힘을 내어 다리 수술의 경과는 누구보다 빨리 좋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게 되어 어머님께 더 잘 해드릴 수 있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입장이 되고 보니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 남들이 보기에도 조금 불편해보이고, 발등에 불을 얹은 듯 화끈거리고 아픈 것이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치료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고 있다.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내게 대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너무 부끄럽고 송구했지만 어머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2015년, 올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다.

"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육신이 고단할 때에나,

다친 다리가 아플 때에나, 늘 내게 새 힘을 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아버지의 목소리로 내게 들려와 지친 내 영혼까지 위로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날마다 감사하며 웃으며 주님께 충성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벧엘교회 작은까페를 소개합니다.

방학리 벧엘교회에 작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쉼터가 만들어 졌다. 전웅목사님께서 그곳에 부임에 오신지 8개월 만에 손수 이루신 예쁜 벧엘까페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단지를 이용하여 까페 외벽을 꾸미고 잠시라도 쉼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누구라도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소박하고 순수가 묻어 있는 이곳. 왠지 차 향에 빠져 음미하고 마시면 행복해 질것 같은 곳. 한번쯤은 들르고 싶어지는 곳. 무료라는 것에 더욱 끌리는 그곳 벧엘까페…. 한눈에 들어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라는 기왓장에 쓰여진 글귀가 인상 깊었다!

이 계절에 가볼만한 곳

우리고장 10월 "축제한마당"

올 가을에 유익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면 어떨까요? 풍성한 가을의 보약 같은 충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무작위로 대표적인 축제를 소개합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10.11)

▧충북예술제2015(괴산읍 10.4~7)

▧청남대국화축제(10.17~11.14)

▧청원생명축제(오창읍 10.2~11)

▧대한민국와인축제(영동군 10.15~18)

덕동리 문화체육시설 "초록꿈체험관"오픈 예정

백운면 덕동리 32-10번지에 위치한 초록꿈체험관이 10월 말에 개장 예정이다.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덕동리와 운학1리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로 건축되었으며 수려한 계곡의 경관을 즐기며 여가 생활을 추구하는 도시인들에게도 개방하여 도농교류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족 모임, 동창 모임, 세미나, 어린이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시설이다.

초록꿈체험마을의 연락처는 (043)651-1233.